

광주 민간공원 1단계 ‘아파트 면적 축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의 아파트 면적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 4개 업체가 비공원시설(아파트) 비율축소를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자문안에서 30%이던 기존 제안서의 비공원시설 비율을 23% 이하

우선협상대상자 4개 업체 ‘18~23%’ 수용키로 시, 제출된 수정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

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2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것도 권고했다.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자문안을 받아들여 비공원시설 비율을 18~23%로 축소한 새로운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대해 타당성 검증 용역에 들어갔다. 검증용역에서는 사업시행의 적법성·합법성 등을 검토한다. 시는 오는 10일 검증 용역결과가 나

오는 대로 이달 중순께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종 협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업 시행까지는 6개월~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는 마복공영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영 고운건설, 수랑공영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영 제일건설 등 4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증용역을 거쳐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협상자로 결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인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 등 6개 공원 7개 지구사업 제안서를 오는 9월 14일까지 접수하고,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투데이뉴스

시, 북한 이탈주민 돕는다 수요조사 후 여름이불 제공

광주시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에게 여름이불 등 하절기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시는 계절별 선호물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광주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가 5월부터 지역 내 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해 생활실태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 근내로 전입한 2년 이내 이탈주민 중 취약가정 50가구를 선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단으로 고통받고, 사선을 넘어온 이탈주민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평화통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관계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도, 태양광 심의권고안 마련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 우선

전남도는 1일 “일선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심의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안전을 점검하는 내용의 심의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구조물 안전 계산과 토사물 유출방지 등 안전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남도는 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실태를 조사, 전문가와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왼쪽 아홉 번째)가 1일 오후 나주시 송월동 빛가람호텔에서 열린 전남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지정서를 수여한 뒤 스타기업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지원하겠다”

김영록 지사, 도내 스타기업과 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나주 빛가람 호텔에서 전남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15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선정된 15개 스타기업은 ㈜SKD HI-TEC, ㈜에코레이, ㈜기성, ㈜정담은, ㈜유에너지, ㈜코인즈, 원광전력(주), ㈜축약엔앤씨, ㈜대한엔지니어링, ㈜새하정보시스템, ㈜네모이엔지, ㈜비논시아노베이터, ㈜신호엔지니어링, ㈜지알컴, ㈜유니텍솔루션이다.

이들 기업은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청색·정정환경산업의 전·후방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청색·정정환경산업의 전·후방기업이다.

김 지사는 또 “기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기업인과 소통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 제일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스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가 유망중소기업의 성장 도모를 위해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5개사를 선정해 5년간 75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담 PM(Project Manager) 지원과 향후 3년간 연 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자금을 지원받는다.

김 지사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작년 경영평가 ‘최우수’

행안부, 지역 공기업 평가...전남개발공사는 또 추락

광주도시철도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지난해 가장 실적이 좋은 뽑혔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241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 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도시철도부문 5년 연속 우수기관 및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광주도시공사는 경영실적은 전년도와 같은 ‘다’ 등급이었지만 고객만족도 부문에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전히 하위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올해는 전년도보다 평가등급이 한 단계 추락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 6개 전남 9개 등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공공성)와 수익성의 조화 노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 이행여부

에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최고등급인 ‘가’ 부터 최하등급인 ‘미’ 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대상 광주 공기업은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 하수도, 광주광산구 시설공단 등 6곳이다.

전남은 전남개발공사와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 나주·순천 등 모두 9곳이다.

평가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나’ 등급에는 광주환경공단 한 곳만 올랐다.

지난해 평가에서 ‘나’ 등급이었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올해 한 단계 더 올라섰고, 광주환경공단도 ‘다’ 등급에서 상승했다.

‘다’ 등급에는 광주도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하수도 공기업이 포함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와 평가등급이 같았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라’ 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다.

전남개발공사는 ‘라’ 등급을, 광주광산구시설공단은 ‘미’ 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등급에 머물렀다.

기초단체 공기업 하수도 분야 평가에서는 광양시가 최고등급인 ‘가’를 받았으며 여수·순천시는 ‘나’ 등급을 받았다.

목포·나주시·영광·화순군은 ‘다’ 등급을, 영암군은 ‘라’ 등급에 그쳤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는 평가등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등급인 ‘미’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평가등급을 받지 못하며 해당기관 사장과 임원의 연봉은 전년도보다 5~10% 삭감된다.

행안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과 지속적인 저자로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나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축사 지붕 스프링클러, 생산비 절감”

전남농기원, 한우농가 경영모델 개발사업 추진

전남농업기술원은 1일 “축사 지붕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내부온도를 떨어뜨려 생산비 절감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순군 동북면의 한우농가 4개 동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결과, 한낮의 외부온도가 37도일 때 내부온도는 34도 미만으로 3도 이상 떨어졌다.

축사내부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한우의 체중이 늘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한우농가에서 기른 한우는 체중이 720kg에서

770kg으로 6.9% 늘었다.

1kg당 생산비는 1마리당 9,683원에서 8,125원으로 16.15% 줄었다.

스프링클러는 1대당 500여만원으로 농업기술원은 다른 축산농가에도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전남농업기술원 조동호 자원경영과장은 “여름철 축사 환경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업 현장에 확산시켜 축산농가의 악성노동 문제 해결은 물론 농가소득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폭염에 광주 물 소비량도 ‘경중’

7월 1,664만여톤 사용...전월비 82만톤 증가

광주지역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물 사용량도 늘었다.

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7월 광주지역의 물 사용량은 총 1,664만9,506톤이었다. 하루평균 54만5,265톤의 물을 사용

한 것으로, 주로 평일에 많았고 주말에는 잠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7월 한 달간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한 날은 25일로 56만7,501톤이었다.

이는 전월 1,582만3,976톤보다 82만5,530톤(5.2%) 늘었고, 지난해 7월 1,630만5,980톤과 비교해도 34만3,526톤(2.1%)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해 7월 하루평균 물 소비량은 52만 5,999톤이었다.

이날 광주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인 39.6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물 사용량 분포를 보면 평일에 많고 주말에 잠시 줄어든다. 주말에 계속 물을 찾는 시민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다행히 지난 6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름 물 부족상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일 시 >> 2018년 9월 8일(토)
● 장 소 >> 광주문성중·고등학교 체육관

제7회 신안천일염 학생바둑대회

- ▶ 접수기간 : 7월 3일(월)~8월 18일(금)
- ▶ 참가자격 : 광주·전남지역의 유치원·초·중·고 재학생
- ▶ 접수처 : 광주광역시초등바둑연맹 ☎062) 673-3780
- ▶ 대회부문 : 최강부, 유단자부, 초등1학년부, 초등2학년부, (11개 부문) 초등3학년부, 초등4학년부, 초등5,6학년부, 유치부, 꿈나무부, 중고등부, 여학생부

- 주 최 : 1004 신안군 M 전남매일
- 주 관 : JM스포츠, 광주광역시초등바둑연맹
- 후 원 : (사)한국바둑교육협회, 전라남도초등바둑연맹

